

성격 특성에 관한 체질판별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김종열* · 김흥기**

Abstract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estion Categories concerning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Mind'

Kim Jong-Yeol* · Kim Honggi**

*Iksan Wonkwang Oriental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tatistics Dept.

Objectives :

To evaluate the prope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 categories concerning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mind', used in Iksan Wonkwang Oriental Medicine.

Methods :

We statistically analyzed data from those 1335 patients focussing on 'relative discrimination ability' to sasang constructions and 'response ratio'. Patients included in this research are only those who had been well treated in Iksan Wonkwang Oriental Medicine during the Period of three years from 2000 to 2002. The data are obtained through the electronic chart developed by Kim Jong-Yeol, and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Results :

In total characteristics of mind, the question category of 'timid' has high discriminating power and effectiveness to Soeum type, more in women than men, and especially with an age of 21 or more; The category of 'hasty-tempered' to Soyang type in women with all ages and men with ages 21-40; The category of 'broad-minded' to Taeum type with ages 41 or more; The category of 'timid and broad-minded' to Soyang type, and especially high to women with ages 41 or more.

Question categories concerning response type in anger were estimated to have different response patterns to sasang constructions only for ages 21 or more by χ^2 test. The question category of 'bear and last long' has high discriminating power and effectiveness to Soeum type, more in men than women, and increasingly to ages; The category of 'impatient and disarmed quickly' to Soyang type in both women and men, especially with ages 21 or more; The category of 'impatient' to Soyang type women or with ages 21 or more. Other categories have low discriminating power or low effectiveness.

* 익산원광한의원 원장,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교신저자: 김종열, 주소) 전북 익산시 신동 311-2 익산원광한의원, 전화) 063-855-6086, Fax) 063-843-4645, E-mail) ssmed@hanmail.net
김흥기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전화) 042-821-5433 Fax) 042-822-0260, E-mail) hgkim@stat.cnu.ac.kr

Concernig expression type of one's thought, the question category of 'straightly' has high discriminating power and effectiveness to Soyang type, more in wemen than men, and especially to ages 21 or more; The category of 'tender' to Soeum type, in women or with ages 40 or less; The category of 'indirectly' to Taeum type in men or with ages 41 or more; The category of 'straightly and stubborn' to Soyang type with ages 41 or more; The category of 'indirectly and tender' to Soeum with with ages 20 or less; The category of 'not express and tender' to Soeum type with ages 41 or more;

Conclusions :

Question categories concerning total characteristics of mind, response type in anger and expression type of one's thought, are partially discriminating and effective to specific constitution according to sex and ages, and some categories are more discriminating and effective when they are composited. But generally, the discriminating power of Taeum constitution group and group with ages 20 or less was too low,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e question categories for those groups.

Key words : relative discriminating power, response ratio, question category, characteristics of mind, Sasang Constitution, constitutional distribution

I. 緒 論

사상의학은 심리학 못지않게 성격 유형에 관심이 많은 학문이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체질별 장부대소는 애로회락 등 네가지 性情의 편차에 따라 결정된다.’¹⁾고 하여 性情¹⁾의 차이가 체질이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분기점이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사상의학계는 性情의 나타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진표를 활용하거나 진료실에서의 직접 문진을 통해 체질판별에 임하고 있고, QSCC와 같은 설문검사지를 개발하기도 했다.²⁾⁻¹⁴⁾

따라서 이러한 사상의학과 성격유형에 대해 많은 연구성과를 확보하고 있는 심리학 사이에 학문적 교류의 필요성은 크다. 이미 사상의학계는 심리학의 성격유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몇 차례 시도한 바 있고¹⁵⁾⁻²³⁾ 최근에는 심리학자가 사상체질의 성격특성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²⁴⁾.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신뢰할 만한 성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²⁴⁾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와 NEO-PI-R(성격특성검사)의 비교분석연구의 경우 연구결과 파악된 소음인의 특성은 대체로 체질특성에 관한 기존의 지식과 일치되나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의 것은 기존 지식과 잘 일치되지 않는다. 그것은 첫째, 성격특성검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둘째, QSCC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셋째 성격특성검사와 QSCC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QSCC가 사상의학 관련 연구에 거의 유일한 객관적 체질판별도구로 쓰여지고 있고 체질판별 정확도가 79%로 높게 주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임상가에서 그 체질판별의 정확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보다 신뢰도 높은 체질검사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하고자 한다.

서양의학에서 초진시 환자의 증상을 통해 질병을 추정하고 검사를 통해 이를 확진하듯이, 사상의학도 초진시 한의학적 진단법에 따라 체질을 추정하고 사상처방으로 복약한 결과를 통해 이를 확진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

1) 性情(性情): 애로회락의 기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性, 사심에 끌린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情이라 하여 구분함.

치지 않고 초진시 진단한 체질을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설문지의 정확도를 검증할 때는 반드시 사상처방을 써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항 개발 과정에서 『東醫壽世保元』 원문에 충실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 축적된 임상경험도 존중해야 하며, MMPI의 개발 및 발전과정에서처럼²⁵⁾ 개발 후에도 다양한 문항검증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²⁶⁾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익산원광한의원에서 사용되어 온 체질판별 문진표의 성격 관련 문항들에 대해 2000-2002년 사이 3년간의 유효환자군 1335여명을 대상으로 한 문항별 통계 분석

을 통해 각 문항이 체질별로, 남녀별로, 연령별로 어떤 변별력을 가지는지 임상검증을 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학계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익산원광한의원에 내원한 초진환자 중 주증²⁾이 호전된 환자 1337명 중 통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태양인 2명을 제외한 1335명의 주증호전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체질 분포

구분 체질 N,%	나이(살)							여자	남자	합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				
소음인	N	34	9	54	63	54	40	51	209	96	305
	%	18.3	8.6	21.2	25.0	26.9	27.4	26.4	26.5	17.5	22.8
소양인	N	58	32	62	69	61	41	68	242	149	391
	%	31.2	30.5	24.3	27.4	30.4	28.1	35.2	30.7	27.1	29.2
태음인	N	94	64	139	120	86	64	72	335	304	639
	%	50.5	60.9	54.5	47.6	42.8	44.5	37.3	42.6	55.3	47.8
합	N	186	105	255	252	201	145	193	786	549	133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문항의 개요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²⁶⁾ 연구를 통해 사상체질의 성격 특성에 대한 「동의수세보원」의 서술과 그 외에 사상의학이 기록되어 전수되어져온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체적 성격특성과 감정표현과의 사표현을 통해 나타나는 세부적 성격특성 등 3개의 설문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전체적 성격특징의 문진 항목은 각각 태음인은 ‘대범하다’, 소음인은 ‘소심하다’, 소양인은 ‘급하다’, 태양인은 ‘과단성있다’ 등이다. 태음, 태양인은 모두 대범하지만 태양인은 대세를 보고 과단성있게 나아가는 특성이 더욱 돋보이고, 소음, 소양인은 모두 소심하지만 소양인은 陽的이어서 급한 면이 더욱 드러나는 까닭이다. 이 영역의 문진표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2) 환자가 호소하거나 진료시 의사에 의해 병증이라고 판단되는 증상 중 가장 주요한 증상을 주증(主症)으로, 나머지 증상은 부증(副症)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성격이	① 대범하다 ② 소심하다 ③ 급하다 ④ 과단성있음
-----	--------------------------------

감정과 관련된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화가 날 때의 대응 방식일 것이다. 자료 조사에 의하면 화가 날 때 소양인은 바로 표현하고 바로 풀리는 반면 태음인은 잘 참고 소음인은 표현을 못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에 화가 났을 때 표현의 즉각성, 표현 강도, 지속 정도, 화나는 감정의 빈도 등에 대해 되도록 문항이 단순해지도록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문항을 만들었다.

화가 나면	① 참는다 ② 표현 못함 ③ 바로 표현함 ④ 강하게 표현 ⑤ 오래 간다 ⑥ 화가 잘 안남 ⑦ 금방 풀어짐 ⑧ 남과 잘 부딪힘
----------	--

성격 특성이 잘 드러나는 또 한가지 분야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료조사에 의하면 태음인은 표현이 신중하나 속고집이 오래 가고, 소양인은 표현이 직선적이거나 고집을 오래 부리지는 않으며, 소음인은 비교적 온순하다고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역시 짧고 단순한 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자기 표현은	① 둘러서 표현한다 ② 표현하지 않는다 ③ 직선적이다 ④ 큰소리를 잘 친다 ⑤ 고집 세다 ⑥ 온순하다
-----------	--

3.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익산원광한의원에서는 초진시 예진실에서 성격과 행동 양식을 묻는 46개의 성정문진 항목이 들어있는 앞면과 음식, 한열, 소화, 대소변, 땀, 월경, 운동, 수면, 소증, 가족력 및 과거력 등을 묻는 뒷면으로 구성된 문진표(별첨 자료 '문진표' 참조)를 환자나 그 보호자가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1차 문진(問診)을 하며 그

모든 자료들은 'Approach 96'을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만든 전자차트(별첨자료 '전자차트' 참조)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Source Data를 얻고 SPSS 11.0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변수에 따른 체질분포를 분석하였다.

성정문진의 각 영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한 영역 내의 문진 항목이 4개면 그 응답형태가 2⁴ 가지까지, 8개면 응답형태가 2⁸ 가지나 나올 수 있다. 이 중에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 항목의 응답자가 3% 미만인 경우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분석하였으며, 무응답자도 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았다.

2) 상대변별력과 응답율

김 등의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²⁷⁾에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대략 변별력 50% 이상, 응답율 10% 이상이면 문항의 유효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았다.

III. 자료 및 분석

1. 전체적 성격 영역의 결과 및 분석

<표 2> "전체적 성격" 항목의 전체 응답 분포

항목	체질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 계
	N,%				
1	N	91	15	25	131
	응답율	14.2	4.9	6.4	9.8
	변별력	0.45	-0.50	-0.35	
2	N	192	147	56	395
	응답율	30.0	48.2	14.4	29.6
	변별력	0.01	0.63	-0.51	
3	N	193	64	199	456
	응답율	30.2	21.0	51.0	34.2
	변별력	-0.12	-0.39	0.49	
4	N	42	17	11	70
	응답율	6.6	5.6	2.8	5.2
	변별력	0.25	0.06	-0.46	

23	N	31	22	37	90
	응답율	4.8	7.2	9.5	6.7
	변별력	-0.28	0.07	0.41	
기타	N	36	15	37	88
	응답율	5.6	4.9	9.5	6.6
무응답	N	55	25	25	105
	응답율	8.6	8.2	6.4	7.9
합	N	640	305	390	1335
	응답율	47.9	22.8	29.2	100.0
Chi-sq. Signif.		$\chi^2 = 165.118$ P = 0.000		$\chi^2_{0.05}(12) = 21.03$	

‘전체적 성격’ 영역의 전체적 응답분포를 나타낸 <표-2>에서 카이제곱 값과 P 값으로 볼 때, 각 체질별로 응답 형태는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율 10% 이상, 변별력 0.5 이상되는 Cell은 2번 항목의 소음인만 뿐이다. 그러나 3번 항목의 소양인칸과 1번 항목의 태음인칸도 변별력이 각각 0.49, 0.45로 0.5에 근접하면서 응답율도 51.0%, 14.2%로 높아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유용성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3번 항목(급하다)과 2번 항목(소심하다)의 전체 평균응답율이 34.2%, 29.6%로 매우 높은 것은 빠른 변화속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번과 3번의 이중응답자도 꽤 많았으며 특히 소양인 응답율과 변별력이 각각 9.5%, 0.41로 비교적 높아서 성별, 연령별 집단에 따라서는 충분한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1번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이 -0.50, 2번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이 -0.51로서 큰 음값을 나타냄으로써 스스로 대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소음인이 될 확률과 스스로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양인이 될 확률은 모두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번 항목의 경우 오히려 태음인에서 소양인보다 소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내적 성찰에 익숙한 음인이 스스로 소심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까닭일 것으로 생각된다. 4번 항목은 태양인이 아닌 모든 체질에서는 응답율과 변별력이 둘 다 현저히 낮았다.

<표 3> “전체적 성격” 항목의 남녀별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	N	51	40	11	4	21	4	83	4
	응답율	15.2	13.2	5.3	4.2	8.7	2.7	10.6	8.7
	변별력	0.44	0.50	-0.50	-0.52	-0.17	-0.69		
2	N	108	84	99	48	34	22	241	154
	응답율	15.2	27.6	47.4	50.0	14.1	14.8	30.7	28.1
	변별력	0.05	-0.01	0.54	0.78	-0.54	-0.47		
3	N	91	102	39	25	117	82	247	209
	응답율	27.1	33.6	18.7	26.0	48.5	55.0	31.4	38.1
	변별력	-0.14	-0.12	-0.41	-0.32	0.54	0.45		
4	N	24	18	14	3	7	4	45	25
	응답율	7.1	5.9	6.7	3.1	2.9	2.7	5.7	4.6
	변별력	0.25	0.30	0.17	-0.31	-0.49	-0.41		
23	N	15	16	15	7	26	11	56	34
	응답율	4.5	5.3	7.2	7.3	10.8	7.4	7.1	6.2
	변별력	-0.37	-0.15	0.01	0.18	0.51	0.19		
기타	N	17	19	12	3	25	12	54	34
	응답율	5.1	6.3	5.7	3.1	10.4	8.1	6.9	6.2
무응답	N	30	25	19	6	11	14	60	45
	응답율	8.9	8.2	9.1	6.3	4.6	9.4	7.6	8.2
합	N	336	304	209	96	241	149	786	549
	응답율	42.7	55.4	26.6	17.5	30.7	27.1	100.0	100.0
Chi-sq. Signif.	여	$\chi^2 = 112.603,$ P = 0.000						$\chi^2_{0.05}(12) = 21.03$	
	남	$\chi^2 = 64.528,$ P = 0.000							

남녀별로 응답분포를 살펴본 <표-3>에서 카이제곱 값은 여성과 남성 모두 큰 값이어서 각 체질별 응답 형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번 항목의 태음인 변별력과 2번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각각 0.50, 0.78로 높아서 [대범/소심]의 차이는 남자에게 체질별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3번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은 남성보다 여성이 0.54로 높았다. 또 2번과 3번 중복응답자의 소양인 응답율과 변별력도 각각 10.8%, 0.51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별 분석에서 충분한 유용성을 갖춘 경우는 변별력의 순으로 2번 항목의 소음인 남성(0.78), 2번 항목의 소음인 여성(0.54), 3번 항목의 소양인 여성(0.54), 2

번과 3번 중복응답자의 소양인 여성(0.51), 1번 항목의 태음인 남성(0.50)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번 ‘대범하다’와 2번 ‘소심하다’의 남녀 응답율이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남자는 대범해야 하고 여자는 소심해도 좋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나고 있는 증거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러한 관념에 의한 응답의 왜곡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번 ‘급하다’의 경우 응답율은 남성이 높고 변별력은 여성이 높은 것은 남성은 급한 성격을 그대로 발산할 수 있고 여성은 아직 참아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다’에 응답한 여성이라면 소양인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번, 3번 중복응답자의 응답율과 변별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크게 높게 나온 결과는 여성이 급하면서도 소심한 양면성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QSCC 개발 초기에 소양척도³⁾가 소음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서 여성 집단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일이 있었는데³⁾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복응답자의 변별력이 소음인(0.01)보다 소양인(0.51)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은 이 집단이 소음인으로 분류되는 QSCC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전체적 성격” 항목의 여성 연령별 응답 분포

항목 N,%	체질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 계		
		-20	21-40	41-	-20	21-40	41-	-20	21-40	41-	-20	21-40	41-
1	N	14	13	24	1	4	6	6	5	10	21	22	40
	응답율	18.7	9.4	19.7	5.0	5.0	5.5	15.0	5.7	8.8	15.6	7.2	11.6
	변별력	0.20	0.30	0.70	-0.68	-0.30	-0.53	-0.04	-0.20	-0.24			
2	N	26	49	33	10	39	50	7	12	15	43	100	98
	응답율	34.7	35.3	27.0	50.0	48.8	45.9	17.5	13.8	13.2	31.1	32.7	28.4
	변별력	0.09	0.08	-0.05	0.57	0.49	0.61	-0.45	-0.58	-0.54			
3	N	18	42	31	4	13	22	20	42	55	42	97	108
	응답율	24.0	30.2	25.4	20.0	16.3	20.2	50.0	48.3	48.2	31.1	31.7	31.1
	변별력	-0.23	-0.05	-0.19	-0.36	-0.49	-0.36	0.61	0.52	0.54			
4	N	3	10	11	3	5	6	0	5	2	6	20	19
	응답율	4.0	7.2	9.0	15.0	6.3	5.5	0	5.7	1.8	4.4	6.5	5.5
	변별력	-0.10	0.10	0.64	2.38	-0.04	0.00	-1	-0.12	-0.68			
23	N	2	11	2	0	9	6	2	11	13	4	31	21
	응답율	2.7	7.9	1.6	0	11.3	5.5	5.0	12.6	11.4	3.0	10.1	6.1
	변별력	-0.10	-0.22	-0.73	-1	0.11	-0.10	0.69	0.25	0.87			
기타	N	1	7	9	0	3	9	1	9	15	2	19	33
	응답율	1.3	5.0	7.4	0	3.8	8.3	2.5	10.3	13.2	1.5	6.2	9.6
무응답	N	11	7	12	2	7	10	4	3	4	17	17	26
	응답율	14.7	5.0	9.8	10.0	8.8	9.2	10.0	3.4	3.5	12.7	5.6	7.5
합	N	75	139	122	20	80	109	40	87	114	135	306	345
	응답율	55.6	45.4	35.4	14.8	26.1	31.6	29.6	28.4	33.0			
Chi-sq. Signif.		-20			$\chi^2 = 22.512, P = 0.032$						$\chi^2_{0.05}(12) = 21.03$		
		21-40			$\chi^2 = 38.668, P = 0.000$								
		41-			$\chi^2 = 69.368, P = 0.000$								

3) 소양인을 판별해내기 위해 만들어지 설문 문항 집단

<표 5> “전체적 성격” 항목의 남성 연령별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20	21-40	41-	-20	21-40	41-	-20	21-40	41-	-20	21-40	41-
1	N	7	17	16	2	2		1	2	1	10	21	17
	응답율	8.4	14.2	15.8	8.7	5.4		2.0	4.5	1.8	6.4	10.4	8.9
	변별력	0.32	0.36	0.79	0.36	-0.48	-1	-0.69	-0.56	-0.79			
2	N	27	32	25	10	20	18	10	7	5	47	59	48
	응답율	32.5	26.7	24.8	43.5	54.1	50.0	20.0	15.9	9.1	30.1	29.4	25.0
	변별력	0.08	-0.09	-0.01	0.44	0.84	1.00	-0.34	-0.46	-0.64			
3	N	26	43	33	5	9	11	23	29	30	54	81	74
	응답율	31.3	35.8	32.7	21.7	11.1	30.6	46.0	65.9	54.5	34.6	40.3	38.5
	변별력	-0.10	-0.11	-0.15	-0.37	-0.40	-0.21	0.33	0.64	0.42			
4	N	2	8	8		2	1		2	2	2	12	11
	응답율	2.4	6.7	7.9		5.4	2.8		4.5	3.6	1.3	6.0	5.7
	변별력	0.88	0.12	0.38	-1	-0.09	-0.52	-1	-0.24	-0.37			
23	N	5	5	6	2	2	3	5	1	5	12	8	14
	응답율	6.0	4.2	5.9	8.7	5.4	8.3	10.0	2.3	9.1	7.7	4.0	7.3
	변별력	-0.22	0.05	-0.19	0.13	0.36	0.14	0.30	-0.43	0.25			
기 타	N	3	9	7	1	1	1	3	3	6	7	13	14
	응답율	3.6	7.5	6.9	4.3	2.7	2.8	6.0	6.8	10.9	4.5	6.5	7.3
무 응 답	N	13	6	6	3	1	2	8		6	24	7	14
	응답율	15.7	5.0	5.9	13.0	2.7	5.6	16.0		10.9	15.4	3.5	7.3
합	N	83	120	101	23	37	36	50	44	55	156	201	192
	응답율	53.2	59.7	52.6	14.7	18.4	18.8	32.1	21.9	28.6			
Chi-sq. Signif.		-20			$\chi^2 = 11.621, P = 0.477$						$\chi^2_{0.05}(12) = 21.03$		
		21-40			$\chi^2 = 28.945, P = 0.004$								
		41-			$\chi^2 = 37.321, P = 0.000$								

성별분포를 다시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한 <표 4>와 <표 5>에서는 도수가 5 미만인 칸이 상당히 많아서 통계분석의 의미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별 연령별로 분석을 세분화했을 때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하는 데 관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연구 및 설문개발 방향 설정에 큰 의미가 있으므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4>와 <표 5>에서 카이제곱값과 P 값은 21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체질간 응답 형태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세 이하 여성의 P 값은 0.032로 상당히 커서 체질간

응답형태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세 이하 남성의 P 값은 0.477로 매우 커서 체질간 응답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 성격’ 영역의 문진항목들은 21세 이상에서만 체질판별에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별력을 살펴본 결과 1번 항목은 여성과 남성 모두 41세 이상에서 0.70 이상으로 높았다. 2번 항목은 41세 이상층은 여성과 남성 모두 1.00, 0.61로 높았으나, 21-40대는 여성이 (0.84), 20세 이하는 남성이(0.57)로 더 높았다. 3번 항목은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0.5 이상으로 높았으나 남성은 21-40대만 0.64로 높았다.

2번과 3번 중복응답자는 41세 이상 여성에서 0.87로 특히 높은 변별력을 나타냈다. 위의 변별력 높은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율은 모두 10% 이상이어서 유용성이 충분했다.

이와 같이 전체적 성격에 관한 설문 영역은 전체적으로 41세 이상의 남녀 모든 체질에 고른 변별력을 가지고, 21-40 연령대 여성의 소음인과 소양인에 변별력이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남성의 소양인에 변별력이 있었다. 하지만 20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에는 3번 항목이 소양인 여성에게, 2번 항목이 소음인 남성에게 각각 제한된 변별력을 가질 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범, 소심, 급함 등의 성격 특징이 연령대별로 환경에 따른 변화와 굴곡을 거치다가 장년에 이르러서야 자기 체질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층별로 문항을 다르게 만들어야 하고 특히 20세 이하 연령층에 대한 문항이 따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화가 나면” 영역의 결과 및 분석

<표 6> “화가 나면” 항목의 전체적 응답 분포

항목	체질 N, %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N	col %	변별력	
1	N	93	46	28	167
	col %	14.5	15.1	7.2	12.5
	변별력	0.16	0.21	-0.43	
3	N	35	20	40	95
	col %	5.5	6.6	10.3	7.1
	변별력	-0.23	-0.08	0.44	
4	N	21	3	16	40
	col %	3.3	1.0	4.1	3.0
	변별력	0.10	-0.67	0.37	
7	N	26	15	18	59
	col %	4.1	4.9	4.6	4.4
	변별력	-0.08	0.11	0.04	
15	N	44	40	7	91
	col %	6.9	13.1	10.8	6.8
	변별력	0.01	0.92	-0.74	

17	N	80	30	30	140
	col %	12.5	9.8	7.7	10.5
	변별력	0.19	-0.06	-0.27	
37	N	93	39	110	242
	col %	14.5	12.8	28.2	18.1
	변별력	-0.20	-0.29	0.56	
기타	N	225	103	122	450
	col %	35.2	33.8	31.3	33.7
무응답	N	23	9	19	51
	col %	3.6	3.0	4.9	3.8
합	N	640	305	390	1335
	col %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chi^2 = 98.614,$ $P = 0.000$		$\chi^2_{0.05}(16) =$	

화가나면 영역 문항의 전체적 응답분포의 카이제곱값은 매우 커서 체질별 응답분포가 서로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응답율이 3%를 넘는 문항은 1, 3, 4, 7번 및 1/5번, 1/7번, 3/7번 중복응답자 등이었고, 그 중 3/7번 응답율이 1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1번, 1/7번 등의 응답율이 10%를 넘었다.

변별력 분석에서는 1/5번의 소음인 변별력이 0.92(응답율 13.1%), 3/7번의 소양인 변별력이 0.56(응답율 28.2%)으로 0.5를 넘었고, 3번의 소양인 변별력도 0.44(응답율 10.3%)로 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3번과 3/7번 중복응답자의 소양인 변별력이 높은 것은 기존 자료에서 얻은 지식과 부합되나 1/5번이 태음인이 아닌 소음인에게 변별력이 높은 것은 뜻밖이다. 1/5번의 태음인 변별력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었다. 1번 단독응답자의 경우 태음인 변별력이 0.16, 소음인 변별력이 0.21로 별 차이가 없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화가 나면 참지만 속으로 오래 가는’ 것은 소음인의 특성이고, 반대로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고 금방 풀어지는’ 것은 소양인의 특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전체적으로 화가 났을 때의 반응 방식에서 태음인에게 변별력 있는 항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태음인의 반응 양식이 다양하다는 의미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화가 나면’ 영역은 소음인과 소양인의 변별에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번의 소양인 변별력이 -0.74로 매우 큰 음값을 나타낸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남녀별 응답분포에서 구해진 카이제곱값과 P값은 체질별로 응답분포가 다름을 보여주었다. 3번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과 응답율은 여성이 0.55, 11.6%로 높게 나온 반면 남성은 0.23, 8.1%로 낮았는데 이는 소양인 여성이 남

<표 7> “화가 나면” 항목의 남녀별 응답 분포

항목 N, %	체질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	N	42	51	33	13	17	11	92	75
	col %	12.5	16.8	15.8	13.5	7.1	7.4	11.7	13.7
	변별력	0.07	0.23	0.35	-0.01	-0.40	-0.46		
3	N	17	18	14	6	28	12	59	36
	col %	5.1	5.9	6.7	6.3	11.6	8.1	7.5	6.6
	변별력	-0.33	-0.10	-0.11	-0.05	0.55	0.23		
4	N	8	13	2	1	7	9	17	23
	col %	2.4	4.3	1.0	1.0	2.9	6.0	2.2	4.2
	변별력	0.1	0.02	-0.56	-0.75	0.34	0.44		
7	N	12	14	6	9	12	6	30	29
	col %	3.6	4.6	2.9	9.4	5.0	4.0	3.8	5.3
	변별력	-0.06	-0.13	-0.25	0.77	0.30	-0.24		
15	N	34	10	28	12	5	2	67	24
	col %	10.1	3.3	13.4	12.5	2.1	1.3	8.5	4.4
	변별력	0.19	-0.25	0.57	1.86	-0.76	-0.69		
17	N	42	38	21	9	20	10	83	57
	col %	12.5	12.5	10.0	9.4	8.3	6.7	10.6	10.4
	변별력	0.18	0.20	-0.05	-0.10	-0.21	-0.35		
37	N	49	44	27	12	71	39	147	95
	col %	14.6	14.5	12.9	12.5	29.5	26.2	18.7	17.3
	변별력	-0.22	-0.16	-0.31	-0.28	0.58	0.51		
기타	N	122	103	73	30	76	46	271	179
	col %	36.3	33.9	34.9	16.8	31.5	30.9	34.5	32.6
무응답	N	10	13	5	4	5	14	20	31
	col %	3.0	4.3	2.4	4.2	2.1	9.4	2.5	5.6
합	N	336	304	209	96	241	149	786	549
	co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여	$\chi^2 = 63.513,$ $P = 0.000$						$\chi^2_{0.05}(16)$ =	
	남	$\chi^2 = 51.108,$ $P = 0.000$							

성보다 더 자유롭게 화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3/7번 응답자의 경우 소양인 변별력은 여성이 0.58, 남성이 0.5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5번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은 남성이 1.86으로 여성의 0.5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율은 각각 12.5%, 13.4%로 비슷했다. 이처럼 응답율은 남녀가 비슷한데 변별력은 크게 차이나는 까닭은 다른 체질 남성들의 1/5번 동시 응답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즉 보통 남성은 화가 나도 오래가는 일이 별로 없으나 소음인 남성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7번(화가 나도 금방 풀어진다) 항목의 소음인 남성 변별력이 0.77(응답율 9.4%)로 유독 높은 것도 흥미롭다. 1/5번의 경우와 합해서 생각해 보면 소음인 남성은 화가 나면 오래 가기도 하고 잘 풀어지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소음인이 소심해서 감정적인 불편을 잘 견디지 못하므로 화가 나면 얼른 풀려고 하는 반면 풀리지 않거나 푸는 방법을 잘 모르면 화가 쫓 하고 오래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연령별 응답분포에서는 역시 20세 이하 연령층의 P값이 0.048로 0.05에 근접하여 체질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변별력이 높은 칸들도 역시 21세 이상 연령층에 주로 분포하였다. 도수가 5 미만인 칸이 너무 많아서 표는 생략했으며 항목별로는 3번과 3/7번 모두 소양인 21세 이상 연령층에서 변별력과 응답율이 높고, 1/5번 응답자 역시 21세 이상 연령층에서 변별력과 응답율이 높았다.

3. “자기 표현은” 영역의 결과 및 분석

<표 8> “자기 표현은” 항목의 전체적 응답 분포

항목 N, %	체질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 계
1	N	66	42	25	133
	col %	10.3	13.8	6.4	10.0
	변별력	0.04	0.38	-0.36	
2	N	46	27	18	91
	col %	7.2	8.9	4.6	6.8
	변별력	0.05	0.30	-0.32	
3	N	70	24	99	193
	col %	10.9	7.9	25.4	14.5
	변별력	-0.24	-0.46	0.76	
4	N	23	11	27	61
	col %	3.6	3.6	6.9	4.6
	변별력	-0.21	-0.21	0.52	
5	N	63	19	32	114
	col %	9.8	6.2	8.2	8.5
	변별력	0.15	-0.27	-0.04	
6	N	53	39	21	113
	col %	8.3	12.8	5.4	8.5
	변별력	-0.02	0.51	-0.36	
15	N	48	25	13	86
	col %	7.5	8.2	3.3	6.4
	변별력	0.16	0.27	-0.48	
16	N	49	20	9	78
	col %	7.7	6.6	2.3	5.8
	변별력	0.31	0.12	-0.61	
25	N	26	12	6	44
	col %	4.1	3.9	1.5	3.3
	변별력	0.23	0.19	-0.53	
26	N	29	21	6	56
	col %	4.5	6.9	1.5	4.2
	변별력	0.08	0.64	-0.63	
35	N	44	15	32	91
	col %	6.9	4.9	8.2	6.8
	변별력	0.01	-0.28	0.20	
36	N	19	7	16	42
	col %	3.0	2.3	4.1	3.1
	변별력	-0.06	-0.27	0.30	
기타	N	82	28	67	177
	col %	12.8	9.2	17.2	13.3
무응답	N	22	15	19	56
	col %	3.4	4.9	4.9	4.2
합	N	640	305	390	1335
	col %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chi^2 = 134.65$ $P = 0.000$		$\chi^2_{0.05}(26) =$	

‘자기 표현’ 영역 문항의 전체적 응답분포의 카이제곱값은 매우 커서 체질별 응답분포가 서로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응답율이 3%를 넘는 문항은 1, 2, 3, 4, 5, 6번 및 1/5번, 1/6번, 2/5번, 2/6번, 3/5번, 3/6번 중복응답자 등이었고, 그 중 3번 문항의 응답율이 1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1번 문항의 응답율이 10%였다.

변별력 분석에서는 3번의 소양인 변별력이 0.76(응답율 25.4%), 6번의 소음인 변별력이 0.51(응답율 12.8%)로 0.5를 넘었고, 4번의 소양인 변별력과 2/6번의 소음인 변별력도 각각 0.52, 0.64로 높았으나 응답율이 6%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문항을 설정한 의도대로 소양인은 직선적이고, 소음인은 온순하고 자기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자기 표현은” 항목의 남녀별 응답 분포

항목 N, %	체질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합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1	N	36	30	27	15	13	12	76	57
	col %	10.7	9.9	12.9	15.6	5.4	8.1	9.7	10.4
	변별력	0.11	-0.05	0.34	0.50	-0.44	-0.22		
2	N	23	23	18	9	16	2	57	34
	col %	6.8	7.6	8.6	9.4	6.6	1.3	7.3	6.2
	변별력	-0.06	0.22	0.19	0.51	-0.08	-0.78		
3	N	34	36	17	7	66	33	117	76
	col %	10.1	11.8	8.1	7.3	27.4	22.1	14.9	13.8
	변별력	-0.32	-0.14	-0.45	-0.47	0.84	0.60		
4	N	11	12	8	3	16	11	35	26
	col %	3.3	3.9	3.8	3.1	6.6	7.4	4.5	4.7
	변별력	-0.26	-0.17	-0.14	-0.34	0.49	0.56		
5	N	30	33	14	5	16	16	60	54
	col %	8.9	10.9	6.7	5.2	6.6	10.7	7.6	9.8
	변별력	0.17	0.10	-0.12	-0.47	-0.13	0.09		
6	N	24	29	28	11	13	8	65	48
	col %	7.1	9.5	13.4	11.5	5.4	5.4	8.3	8.7
	변별력	-0.14	0.09	0.62	0.31	-0.35	-0.39		
15	N	30	18	17	8	11	2	58	28
	col %	8.9	5.9	8.1	8.3	4.6	1.3	7.4	5.1
	변별력	0.21	0.16	0.10	0.63	-0.38	-0.74		
16	N	26	23	11	9	4	5	41	37
	col %	7.7	7.6	5.3	9.4	1.7	3.4	5.2	6.7
	변별력	0.48	0.12	0.01	0.39	-0.68	-0.50		
25	N	16	10	9	3	3	3	28	16
	col %	4.8	3.3	4.3	3.1	1.2	2.0	3.6	2.9
	변별력	0.34	0.13	0.21	0.07	-0.65	-0.31		
26	N	18	11	16	5	4	2	38	18
	col %	5.4	3.6	7.7	5.2	1.7	1.3	4.8	3.3
	변별력	0.11	0.10	0.58	0.59	-0.66	-0.59		

35	N	19	25	13	2	21	11	53	38
	col %	5.7	8.2	6.2	2.1	8.7	7.4	637	6.9
	변별력	-0.16	0.19	-0.08	-0.70	0.29	0.07		
36	N	11	8	6	1	10	6	27	15
	col %	3.3	2.6	2.9	1.0	4.1	4.0	3.4	2.7
	변별력	-0.05	-0.04	-0.16	-0.62	0.21	0.47		
기타	N	48	34	18	10	38	29	104	73
	col %	14.3	11.2	8.6	10.4	15.8	19.5	13.2	13.3
무응답	N	10	12	7	8	10	9	27	29
	col %	3.0	3.9	3.3	8.3	4.1	6.0	3.4	5.3
합	N	336	304	209	96	241	149	786	549
	col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sq. Signif.	여	$x^2 = 95.243,$ $P = 0.000$						$x^2_{0.05}(26)$ =	
	남	$x^2 = 59.992,$ $P = 0.000$							

남녀별 응답분포표의 카이제곱값과 P값을 볼 때 체질별로 응답분포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번과 2번 항목의 남성 소음인 변별력이 각각 0.50(응답율 15.6%), 0.51(응답율 9.4%)로 높아서 소음인 남성은 다른 체질과 달리 돌려서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나 소음인 여성은 그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번 항목은 자료에서는 태음인의 성향으로 되어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오히려 소음인에게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항목 '직선적이다'의 소양인 변별력과 응답율은 여성이 0.84, 27.4%로 남성의 0.60, 22.1%보다 높아서 화난 감정 표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양인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6번 항목 '온순하다'의 소음인 변별력은 여성이 0.62로 남성의 0.31의 두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응답율은 각각 13.4%, 11.5%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처럼 남녀별로 응답율에 비해 변별력이 더 크게 차이나는 까닭은 이 항목에 대한 태음인 여성들의 응답율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스로 온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음인 여성이 특별히 많다고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4번 항목의 소

양인 변별력, 2/6번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 1/5번 항목의 소음인 남성 변별력 등이 0.5보다 높았으나 응답율이 낮았다.

연령별 응답분포에서는 1번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과 3번 항목의 소양인 변별력이 모두 21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아서, 1번 항목은 21세 이상의 남성을 3번 항목은 21세 이상의 여성을 변별하는데에 각각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표현을 직선적으로 하느냐 돌려서 하느냐 하는데 관한 체질적 차이가 제대로 나타나는 시기가 20대 이후임을 보여준다.

반면 6번 항목 '온순하다'의 소음인 변별력은 오히려 40세 이하 연령층에 변별력이 높아서 40세 이하의 소음인 여성을 변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특히 연령별 변별력이 20세 이하가 0.80, 21-40세가 0.58, 41세 이상이 0.41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변별력은 낮아져서 어릴 때는 소음인의 온순함이 두드러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특성이 점차 체질별로 평균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1/6번 항목의 20세 이하 소음인 변별력이 1.82(응답율11.6%)로 매우 높은 점도 이러한 경향성 위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2/6번 항목의 소음인 변별력은 41세 이상에서만 0.74(응답율11.0%)로 높아서 반대

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둘러서 표현하며 온순한’ 소음인은 20세 이하에서 뚜렷이 많고, ‘표현하지 않으며 온순한’ 소음인은 41세 이상에서 많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태음인을 변별하기 위해 설정한 5번 항목 ‘고집 세다’는 41세 이상의 태음인 변별력이 0.47, 1/5번 항목은 21-40세의 소음인 변별력이 0.48, 3/5번 항목의 41세 이상 소양인 변별력이 0.51로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었고 응답율도 10% 근처로 높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5번 항목의 변별력은 낮은 편이었고 1번항목과 3번 항목의 변별력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도 도수 5 미만인 칸이 많아서 표를 생략하였다.

IV. 결 론

2000-2002년 사이에 익산원광한의원에 내원한 초진환자 중 주증호전군 1335명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에 대한 문진 항목의 체질별 응답 분포에 관해 각 항목의 응답자 그룹에서 특정 체질 비율이 그 체질의 전체비율에 비해 몇배나 더 많은지(혹은 적은지)를 나타내는 [상대변별력]을 정의하고, 이것과 [체질응답율] 두 가지를 가지고 응답율이 3%를 넘는 항목에 대해서만 통계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적 성격’ 영역의 카이제곱 분석에서는 20세 이하의 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별, 연령 그룹에서 체질별 응답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력 분석에서는 2번 항목 ‘소심하다’의 소음인 변별력이 0.63(응답율 48.2%)으로 가장 높았고, 남성(0.78)이 여성(0.54)보다 더 높았으며,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0.49-0.61) 높고, 남성은 21세 이상에서 특히(0.84-1.00) 높았다. 3번 항목 ‘급하다’의 소양인 변별력은 0.49(응답율 51.0%)였고, 여성(0.54)이 남성(0.45)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0.52-0.61) 높고, 남성은 21-40세에서만 0.64로 높았다.

1번 항목 ‘대범하다’의 태음인 변별력은 0.45(응답율 14.2%)였고, 남성(0.50)이 여성(0.44)보다 높았으며, 특히 41세 이상의 남성(0.79)과 여성(0.70)에서 높았다. 2/3번 중복 응답자는 여성 소양인이 특히 많았고(변별력 0.51, 응답율 10.8%), 41세 이상의 여성의 변별력이 0.87로 특히 높았다.

2. ‘화가 나면’ 영역의 카이제곱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체질별 응답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세 이하 연령층은 P값이 0.048로 상당히 커서 체질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력 분석에서는 1/5번 복합 항목(참고 오래 간다)의 소음인 변별력이 0.92(응답율 13.1%)로 가장 높았고, 남성(1.86)이 여성(0.57)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변별력과 응답율이 높아졌다. 3/7번 복합항목(바로 표현하고 금방 풀어진다)의 소양인 변별력도 0.56(응답율 28.2%)으로 높았고,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0.51, 0.58) 높았으며, 21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았다(0.63-0.68).

그 외에 단일 항목 응답자 중에서는 3번 항목의 변별력이 0.44로 어느정도 높았고, 여성(0.55)이 남성보다 높고 21세 이상 연령층에서 비교적(0.48-0.55) 높았을 뿐 그 외의 단일 항목들은 변별력이 없었다.

3. ‘자기 표현은’ 영역의 카이제곱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체질별 응답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별력 분석에서는 3번 ‘직선적이다’의 소양인 변별력이 0.76(응답율 25.4%)로 가장 높았는데, 여성(0.84)이 남성(0.60)보다 높고 21세 이상에서 0.77-0.96으로 높았으며, 3/5번 복합항목(직선적이고 고집 세다)도 41세 이상에서는 0.51로 높았다.

6번 ‘온순하다’의 소음인 변별력도 0.51(응답율 12.8%)로 높았는데 성별로는 여성만 0.62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0.80, 21-40

세가 0.58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또 1/6번 복합항목(둘러서 표현하고 온순하다'은 20세 이하에 연령층에서만 1.82로 높은 반면, 2/6번 복합항목(표현하지 않고 온순하다)은 41세 이상 연령층에서만 0.74로 높았다.

1번 항목 '둘러서 표현한다'는 태음인 변별력은 거의 없고 남자 소음인 변별력이 0.50(응답을 15.6%)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41세 이상에서 0.57로 높았으며, 1/5번 복합 항목(둘러서 표현하되 고집세다)은 21-40세 연령층에서만 0.48로 제법 높았다.

4. 문항들이 대체로 소음인과 소양인의 변별력은 높은 반면 태음인의 변별력은 낮아서 태음인 변별 문항이 개발될 필요가 있었다. 또 21세 이상 연령층의 변별력은 대체로 높은 반면 20세 이하 연령층의 변별력은 낮아서 어린이의 체질을 변별해낼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함흥:보원계. 1900.
2. 김선호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 분류검사(QSCC)의 타당화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5(1): 61-80.
3. 김선호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1): 187-246.
4. 이정찬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1): 247-294.
5. 노성호 · 이의주 · 홍석철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타당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사상의학회지. 1996;8(2): 239-256.
6. 박성식 · 박은경 · 최재영.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103-118.
7. 금영우 · 김종원. 체질진단분류에 따른 질병

- 및 증상유형에 관한 임상적 연구Ⅱ(문진표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1): 119-136.
8. 김태균 · 김종원.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 173-185.
9. 박은경 · 박성식, QSCCⅡ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 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 78-93.
10. 김상복 · 이수경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 94-103.
11. 장현록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1): 45-50.
12. 박혜선 · 주종천 · 김주한 · 김경요. 사상체질 분류검사지의 임상적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 35-44.
13. 김태연 · 유정희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 27-38.
14. 이상규 · 광창규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Ⅱ),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 39-49.
15. 이정찬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연구. 사상의학회지. 1993;5(1): 81-98.
16. 조용태 · 고병희 ·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4;6(1):
17. 김달래.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4;6(1):
18. 김인태 · 고병희 · 송일병, 「음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 사상의학회지 1996;8(2): 95-116.
19. 박희관 · 이종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음

- 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학회지 1998;10(2): 41-50.
20. 채한 · 이수진 · 이진우 · 노삼웅 · 배현수 · 홍무창 · 신민규, Myers-Briggs Type Indicator와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특성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1): 42-48.
21. 최선미 · 지상은 · 정봉연 · 안규석 · 고병희 · 성현제, QSCC2와 MBTI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의 성격유형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22. 성진혁 · 한국MBTI연구소,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유형의 설문 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 156-164.
23. 송지형, QSCCⅡ의 성정 항목과 MBTI의 상관성에 대한 비교 연구, 동국대대학원 2002.
24. 박효인, 사상체질분류검사와 성격특성검사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 104-122.
25. 김중술,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9.
26. 김종열 · 송정모 · 김경요,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학회지. 1998;10(1): 60-62.
27. 김종열 · 김홍기, '전체적 인상'에 관한 문진항목의 통계적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2): 64-74.
28. 이도경, 사상요람, 익산:원불교출판사, 1995. 167-168면.
29. 천성수 · 박중순, 사회과학 조사분석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30. 박정민 · 나상균, SPSS 11.0을 이용한 통계 분석, 서울: 법문사, 2003.